

April  
Polar Policy Net 2015

## Contents

### ◇ 북극이슈포커스

### ◇ 국제회의포커스

### ◇ 해외이슈포커스

### ◇ 법제이슈포커스

## 북극이슈포커스

### 동토층의 변화, 북극기후의 위협으로 다가오다

- 워싱턴 포스트는 4월 1일 "The Arctic Climate threat that nobody's even talking about yet"이라는 제목으로 동토층\* 환경변화의 위협을 경고

\* 동토층 : 지층의 온도가 연중 영하를 유지하는 지역

### 오피니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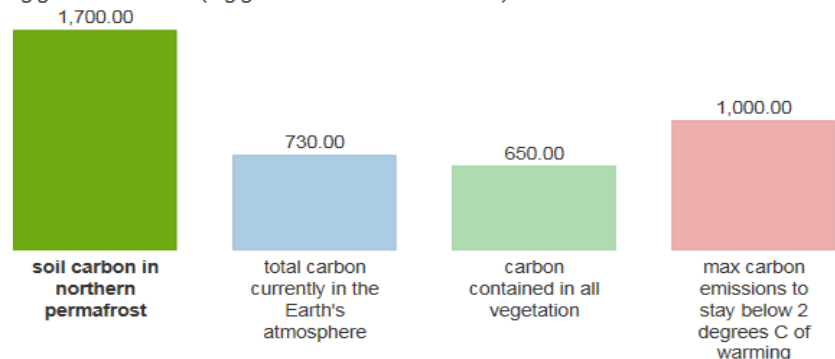
- 아직 관심이 부족한 **동토층 환경변화 연구 강화 필요**  
→ 극지연구소는 환북극 동토층 및 스발바드 제도를 중심으로 환경변화 관측 연구를 진행중이며, 향후 연구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

### 본문

- 워싱턴 포스트는 북극 동토층의 환경변화를 아직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 북극 기후 위협으로 제시
- 북극 동토층의 융해(thawing)에 따라 동토층 토양 내부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되고, 이는 다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이어져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이 발생
- 북극 동토층에는 아래 표와 같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됨

### The massive store of carbon in Arctic permafrost

In gigatons of carbon (a gigaton is a billion metric tons).



Source: [National Academy of Sciences, 2013](#)

The Washington Post

-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북극이사회 의장국이 되더라도 동토층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며,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밝힘

April  
Polar News Letter 2015

## Contents

◇ 과학기술포커스

◇ 국제회의포커스

◇ 해외이슈포커스

◇ 법제이슈포커스

## 국제회의포커스

### 북극이사회(AC) 고위실무자회의(SAO) 및 장관회의 개최

- 2015년 3월 4일~5일 캐나다 화이트호스에서 캐나다의 의장국 기간 중 마지막 고위실무자회의(SAO) 개최
- 2015년 4월 24일 캐나다 이팔루이트에서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이 캐나다에 이어 의장국 수임

### 오피니언

- 동 회의에서 차기 의장국 미국은 △북극해 안전·안보 및 관리 △경제 및 생활 여건 개선 △기후변화 영향 대응 강화 △북극이사회 위상 강화 및 북극관련 대내외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

### 본문

- 캐나다의 의장국 기간 중 개최된 마지막 고위실무자회의로, 몽골, 스위스, 그리스, 터키 등이 옵저버 가입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제사회의 옵저버 가입 지원 증가 추세를 보임
- 캐나다는 원주민 중심 경제(개발)·복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펼쳐 북극경제 이사회(AEC) 출범, 원주민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Polar Code 제정 지원, 블랙 카본·메탄 등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등의 실적을 냄.
- 차기 의장국인 미국은 기후변화, 북극해 안전, 안보 등 북극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글로벌한 이슈 대응 및 환경보호에 초점을 둘 예정임
- 2014년 출범한 북극경제이사회(AEC)의 의장은 AC 체제와 별도의 독립적 체제로 운영할 것임을 설명함. 또한 AEC 참석범위는 AC회원국 및 상시참여자(원주민) 기업대표로 제한하나, 산하별 3개 작업반(북극관리, 해양운송, 책임 있는 자원개발)에는 옵저버 국가 기업을 포함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업에도 개방할 것을 밝힘. 현재 AEC 대표로는 AC 8개국의 기업 대표 각 2인과 AC 영구참여자단체인 6개 원주민그룹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음.

<장관급회의 개최 사진>

\* 2015.4.24, 캐나다 이팔루이트



April  
Polar News Letter 2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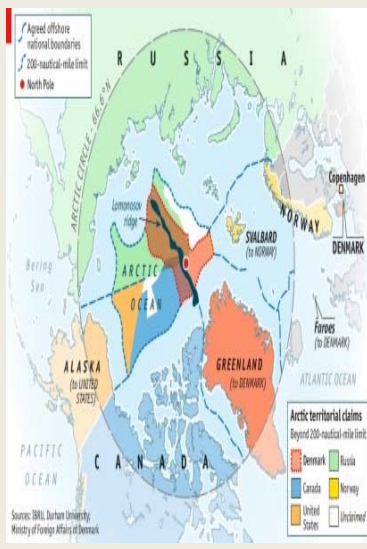
## Contents

◇ 과학기술포커스

◇ 해양수산포커스

◇ 해외이슈포커스

◇ 법제이슈포커스



## 해외이슈포커스

### 북극 바렌츠해 투자잠재력 1,400억 유로로 추정 (자료: Arctic Journa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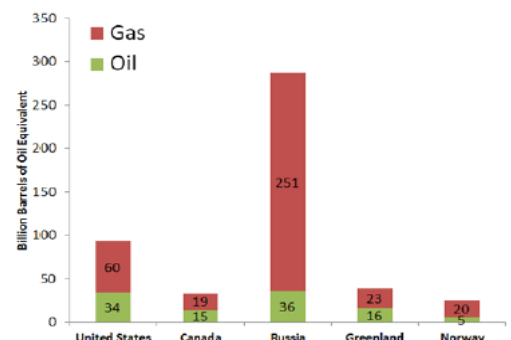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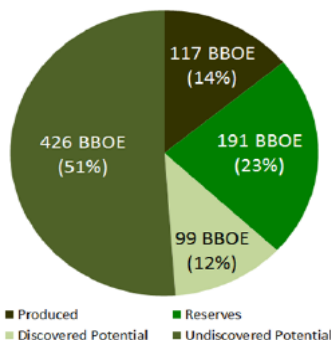
- 핀란드 상공회의소에 의하면, 바렌츠해로 국한하더라도 북극에 대한 투자규모가 향후 10년에 걸쳐 1,400억 유로가 추가될 전망

### 오피니언

- 북극권 투자환경 개선에 노르딕국가의 민간부분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북극 비즈니스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
### 본문

- 북극권 국가들의 비즈니스모델은 유가스전 개발과 유관 인프라 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, 특히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수송부문의 협력관계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음
- 노르딕 국가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북극지역에 적용하는 데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음
- 핀란드는 미국에 이어 2017년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 예정되면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제관계자들이 정치계를 압박하고 있음
- 노르딕국가들을 중심으로 북극경제이사회(Arctic Economic Cooperation)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반면 안보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음
- 이와 관련하여 노르딕국가들은 최근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병력 배치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협력에 합의하였음(4.16)
  - \* 노르웨이, 덴마크, 아이슬란드는 NATO 회원이나,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 회원이 아니어서 새로운 안보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보임
- 이중 노르딕 국가들의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는 스웨덴이며, 스웨덴은 현재 EU와 Nordic-Baltic Group의 군사협력을 동시에 선도하고 있음



April  
Polar News Letter 2015

## Contents

◇ 과학기술포커스

◇ 해양수산포커스

◇ 해외이슈포커스

◇ 극지정책포커스

\* SIOS (Svalbard Integrated Arctic Earth Observing System)  
: 노르웨이 등 28개국이 참여하여 스발바르 전역에서 지질 / 환경 / 해양생태계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

\*\* IODP(Integrated Ocean Discovery Program)  
: 미국이 주도하고 22개국이 전 세계 해양을 10개 주요 해역으로 구분하여 최첨단 시추장비로 심해저 시추 및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공동프로그램

## 극지정책포커스

### 「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」 수립

- 주요 내용으로 북극이사회 참여 확대 및 중점 워킹그룹 참여역량 집중, 국제공동연구 참여 활성화 및 연구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,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등의 북극 정책 관련 계획을 제시

### 오피니언

- 북극이사회와 UN해양법협약 중심의 북극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는 국가간 (경제)협력에 앞서 과학연구 교류의 선행이 필수적인바, 극지연구소로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북극권국가 간 공동연구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제2 쇄빙연구선 건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

### 본문

-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월 7일 북극정책 기본계획('13.12.)의 1년간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담은 '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'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였음
- 미국이 북극이사회 차기 의장국('15~'17)이 됨에 따라 환경보호, 원주민 복지 등 전통적 의제가 한층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
- 정부는 (1) 북극권 국제협력 강화(북극이사회 참여 활성화, 북극권 연안국 및 옵서버 국가와의 협력), (2) 북극 연구지평 확대(북극권 국가와의 공동연구, 북극 공간정보 구축, 제2쇄빙연구선 예타 추진 등 인프라 기반 확충), (3) 비즈니스 기반조성(자원탐사 및 조선·해양플랜트 기술개발, 북극항로 상용화, 수산진출, 항만개발협력) 등의 2015년 추진전략을 제시함.
- 극지연구소는 지난 1년 간 북극 동토층 관측 거점확보·한노르웨이극지연구협력센터개소(144), 한-그린란드 공동탐사를 통한 희토류 광맥발견 등 북극정책 전반의 이행에 기여하였으며,
- 2015년에는 SIOS\* 및 IODP\*\* 프로그램 참가, 캐나다 CHARS기지 공동활용, 제2 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, 북극연구 컨소시엄 운영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.

